

이론과 자료가 만나는 국어학 연구를 위하여 서강대학교 서정목 교수를 만나다



답변자: 서정목(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질문자: 권창섭(서울시립대학교 강사)

때: 2013. 9. 11.(수)

곳: 교수 연구실과 부임동의 식당

어떤 분야의 학문이든지 현상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대상이 되는 현상들을 꼼꼼하게 관찰하여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 학문을 하는 모든 이들의 의무일 것이다.

서강대학교 서정목 교수는 생성 문법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현대 국어뿐 아니라 중세 국어 및 방언에 이르기까지 한국어의 다양한 모습들을 기술하고 설명한 국어학자이다. 40년 가까이 한국어학 연구에 매진하며 《국어 의문문 연구》, 《문법의 모형과 핵 계층 이론》, 《변형과 제약》 등의 저서와 《변형 문법》, 《GB 통사론 강의》 등의 역서를 내며 한국어 통사론에 큰 공헌을 하였다.

퇴임을 한 학기 정도 남긴 지금, 향가와 한문 등을 공부의 대상으로 삼아 바빠 보내시는 서정목 교수를 만나 보았다.

권창섭 안녕하십니까? 곧 퇴임을 맞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서정목 마지막 학기를, 다른 때와 똑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수업에 충실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권창섭 아쉬움이 있으신가 봅니다.

서정목 제 삶이 학교 행정에 관여한 시간이 많고, 국어원에서 4년씩이나 연구 행정을 해서 그런지 깊이 있는 연구에 몰두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있습니다. 연구를 잘 못하면 가르치기라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가르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요. 좋은 학생들 만나서 선생님들께 배운 것과 내 스스로 찾아 낸 사실들을 간추려 잘 전달하고 싶은데, 뜻대로 잘 안 되었어요. 아쉬움이 많은 삶이지요. ‘청산여화도(靑山如畫圖)인데 인상모미성(人常慕未成)이로다¹⁾가 제 처지에 딱 맞는 말이지요.

권창섭 요즘 들어 특별히 하고 계신 일은 없으신지요?

서정목 지금 주로 하는 일은 〈모죽지랑가〉에 대한 책을 쓰는 것이고, 틈틈이 빨간 책²⁾, 까만 책³⁾을 새로 쓰는 ‘한국어 문장 구조 연구’의 원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요일 선생님을 모시고 배우는 한문 공부에도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할 일은 선조들이 남긴 것을 읽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1) 청산은 그림 같은데, 사람은 이루지 못한 꿈을 그리워한다.

2) 《문법의 모형과 핵 계층 이론》을 말한다. 표지가 빨간색인 까닭에 국어학도 사이에서 흔히 서정목 선생님의 ‘빨간 책’으로 통한다.

3) 《변형과 제약》을 말한다. 표지가 검은색인 까닭에 국어학도 사이에서 흔히 서정목 선생님의 ‘까만 책’으로 통한다.

선생님과 선배들이 좋아서 국어학에 입문

권창섭 오래전 이야기부터 꺼내 볼까요? 국어학에 입문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실 때부터 국어학에 뜻이 있으셨는지요?

서정목 그렇지 않습니다. 언감생심, 시골에서는 학문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지요. 힘에 겨운 그 꿈을 품게 된 것은 국문학과 입학 후 선생님들을 뵈고 난 후이지요. 그 꿈은 선생님이 좋아서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공부를 하고 싶고, 선생님처럼 가르치고 싶다는 어린애 같은 생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권창섭 그럼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시게 된 계기는 있으신지요?

서정목 기이한 인연이지요. 제가 다닌 마산고등학교에 좋은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학년만 가르치시는 독보적인 국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서울대 문리대를 나오신 정재관 선생님이십니다. 3학년 때 그분이 우리 반 담임이 되셨고 제가 부반장을 맡았는데, 가끔 댁에 부르셔서 채점 합산 등의 일을 시키시면서 문리대 교수들이 집필한 국어 참고서를 주시고 젊은 날 동숭동에서 보낸 세월을 반추하시곤 하셨죠. 입시 때, 다들 하듯이 상대 간다니까 '대학은 돈 벌려고 가는 곳이 아니다. 학문하러 가는 곳이다. 상대는 유학 안 가면 안 된다. 가난한 선생님 아들이 유학 갈 수 있겠느냐? 네 문학적 재능이 아깝다. 국문학, 국사학이 네 사정에는 맞는다. 적성도 그쪽이고. 거기는 합격도 보장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합격도 보장된다는 놀라운 말씀에 끌린 것이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 소설도, 시도 써 본 적이 있고, 국어 성적도 좋고 하여 국문과를 지원했습니다.

권창섭 그럼 국문과에 입학하셔서 국어학을 전공하시게 된 건 어떤

계기인가요?

서정목 입학해 보니 우리 학과가 국어학을 공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1968년에 교양과정부가 옛 공대 캠퍼스(공릉동)에 설치되었는데 그때 이병근 선생님께서 그곳에 조교 선생님이로 오셨어요. ‘국어학 개설’을 심약 선생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셨는데 이병근 선생님께서 모시고 강의실까지 오시고 끝나는 시간에 문밖에서 모시고 가시고, 그런 모습이 경이로웠어요. ‘아, 스승과 제자 사이는 저런 것이구나!’ 하는. 곁에 가 볼 수만 있어도 좋으려면 하는 생각을 했지요.

권창섭 역시 또 선생님들의 영향이 컸군요.

서정목 네, 그러다 1학년 겨울 방학 때 국어학을 공부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니, 아버지께서 ‘그게 내가 젊었을 때 하고 싶던 공부였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1940년대에 서울서 중학을 마치고 공부하러 동경에 가셨다가 일제의 학병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되돌아오셔서 초등학교 교편을 잡으셨는데, 그런 꿈을 품으셨던 줄은 몰랐지요. 국어학, 국문학에 관한 책이 집에 좀 있었어요.

권창섭 그러시곤 본격적으로 국어학 공부를 시작하셨겠습니까.

서정목 승낙을 받고 2학년이 되어 일석 선생님, 심약 선생님, 강신항 선생님, 이기문 선생님, 김완진 선생님, 이승욱 선생님, 안병희 선생님의 강의를 차례로 수강하면서 그 세계 속으로 끌려들어 간 것이지요.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대한 흡인력 같은 것이 그때 문리대 국어학 분야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기문, 김완진 선생님의 2시간 연속 강의는 메모지 하나 없이 기억 속의 실타래를 풀어내시는 내용인데, 받아 적기에 숨이 가쁠 정도로 한 자도 빠트릴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했고, 나중에 읽어 보면 고칠 데 없는 완전한 문장들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강의를 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권창섭 그럼 대학원 진학 생각은 언제 하시게 된 겁니까?

서정목 심약 선생님께서는 정년 직전이시라, 마지막 제자인 저희들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베풀었어요. 저는 학군단(ROTC)을 했는데, 어느 오후에 총기 손질하고 있는 저희들을 둘러보시면서, 아쉬움과 쓸쓸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언제 제대하느냐? 대학원 진학은 할 것이냐?’ 그러셨어요. 그때는 대학원 진학을 본인이 결심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는 분위기였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군복무 중에 휴가를 나와 새로 문리대에 부임하신 김완진 선생님 연구실에 인사를 갔었는데 《중세 국어 성조의 연구》에 제 이름을 정성 들여 써 주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너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와서 공부를 하여라’고 하는 무언의 지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이기문 선생님 연구실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국어 음운사 연구》를 주시면서 제대 후에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당연히 이 공부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선생님들과 선배들이 좋아서 국어를 선택한 셈입니다.

숙명과도 같은 생성 통사론 연구

권창섭 선생님의 연구 업적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생성 문법의 적극적 도입입니다. 생성 문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시던 시기와 비교할 때 지금은 생성 문법에 대한 관점의 변화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서정목 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생성 문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기문 선생님께 3년 동안 무려 5개 과목을 통하여 생성 음운론(SPE), 통사론의 기본적인 것을 다 배웠습니다. 또

3학년 때 심악 선생님께서 중세 국어 문법을 다 가르치셨고요. 거기에 1970년부터 미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던 서강대학교의 김완진 선생님께서 출강하셔서 촘스키의 《Syntactic Structures》와 《A Transformational Approach to Syntax》를 강독하셨습니다. 그리고 ‘문 접속과 구 접속’ 등을 통하여 심층 구조-변형-표면 구조를 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강의들 속에서 ‘언어의 표면 현상을 관찰하여 그 현상을 지배하고 있는 심층의 원리를 밝혀라’는 것이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의 문리대 국어학 분야 선생님들 강의의 핵심 교훈이었습니다.

권창섭 그걸 바탕으로 초반에는 주로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요?

서정목 1970년대 초 학과의 대학원 연구 분위기가 홍윤표 선생님의 ‘중세 국어의 격’으로부터 시작하여 온통 격과 조사에 쏠려 있었습니다. 저도 그 시류를 따라 ‘속격’을 공부했는데,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었습니다. 변형론자 스타일이 그 주제에 통할 리가 없지요. 생성 통사론의 격 이론은 훨씬 후에나 안정이 되는데 그건 국어학의 전통적 격 연구와는 한참 거리가 있지요.

권창섭 박사 학위 논문은 의문문을 주제로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요?

서정목 1976년에 최명옥 선생님이 경남 방언을 자료로 ‘현대 국어의 문문 연구’를 학술원 논문집에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안병희 선생님의 ‘중세 국어 의문문’과 비교를 해 보았지요. ‘다 한 것은 아니다, 좀 더 해야 할 게 있겠다’ 싶었어요. 음운론 전공자도 하는데 명색이 통사론 전공자가 못하면 안 된다는 오기도 있었어요. 경남 방언을 대상으로 하여 안병희 선생님 논문 수준만큼 써야겠다는 욕심이 생겼지요. 그리하여 1979년에 논문을 쓰면서부터 의문문 공부를 시작하였지요. 격 조사에서 어미로 공부 주제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처음에는 전체 종결

어미 속에서 의문문을 보려 하였지요. 좁혀서 의문문만 보게 되었는데 전 종결 어미를 다 보려 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전체 체계를 짚 수 있었으니까요. 경어법, 시간 표현 등도 종결 어미 전체를 보면서 갖게 된 과제들이지요.

권창섭 거기에 생성 통사론을 적용하신 거로군요.

서정목 한국언어학회에서 철마다 최신 이론 강독이 있었고, 수요일 밤마다 영어학 교수들과 함께하는 강독회가 있었어요. 그때 중요한 생성 통사론 논문을 거의 모두 읽었습니다. 촘스키(Chomsky 1977)의 ‘On WH- Movement’, 황(Huang 1982)의 ‘중국어 WH-현상’, 니시가우치(Nishigauchi 1985)의 ‘일본어의 논리 형식부’, 호르바트(Horvath 1986)의 ‘헝가리어 WH-현상’ 등을 상세히 읽었고, 래드퍼드(Radford 1981, 번역은 1984, “변형 문법이란 무엇인가”)를 이광호, 임흥빈 선생님과 함께 번역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생성 통사론에 경도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요. 저는 방언과 문헌 자료에서 출발했고, 거기에 WH-현상⁴⁾이 있어서 생성 통사론을 응용하게 된 것이지요. 생성 통사론과 국어 문법 현상이 비교적 불화를 덜 일으키는 편안한 논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세부적으로는 많은 갈등이 있었고, 국어 현상을 위하여 이론을 조절하고 나름대로 생성 통사론을 상당히 수정한 설명 방안을 만들었지만 그런 것은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4) 서구어에서 의문사가 문장의 가장 앞에 오는 현상을 말한다.(예: What is your name?) 중세 국어에서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경우, ‘-노, -고/오’의 어미로 문장이 끝나는데, 경상 방언의 의문 어미 ‘-노, -고’의 경우도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서만 쓰인다. 이처럼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그렇지 않은 의문문과 문장 구조상으로 차이를 보이는 현상을 WH-현상이라 일컫는다.

권창섭 앞서 ‘빨간 책’, ‘까만 책’이라 언급하신 책들은 어떻게 집필을 시작하시게 된 겁니까?

서정목 여기에는 첫사랑이 관여되어 있어요. 1979년 강원대학교에 전임 강사로 갔습니다. 첫 강의가 ‘언어학 개론’이었어요. 수강생이 국어교육과 학생들이었지요. 그때 1979년 3월부터 사용할 제5차 교육 과정의 김인정 고교 문법 교과서 5종이 나왔어요. 그중에 다른 4권은 과거의 답습이었고, 김완진, 이병근 선생님 공저의 박영사 책이 제일 나왔어요. 그 교과서가 출판되자마자 선생님께서 주셔서, 그 교과서와 이홍배 교수 등이 쓴 탐출판사의 《언어학 개론》, 선생님들께 배운 강의 노트 등을 늘어놓고 강의안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생성 통사론이 중심에 놓이는 강의가 되었지요. 수강생들이 당장 제 별명을 변형 문법, 심층 구조라고 짓더라고요.(웃음) 그런데 그 강의안이 다른 강의에서도 계속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처음 강의 맡아 나간다고 인사 오면 무조건 첫사랑 강의안을 정성 들여 만들라고, 그것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생성 통사론과 맞부딪히게 된 것은 첫 강의가 ‘언어학 개론’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빨간 책, 까만 책도 시원은 그 강의안으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창섭 계속 첫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신 거로군요. 저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웃음)

서정목 1989년 6월에 하버드-엔칭 방문 교수로 케임브리지대학에 갔습니다. 가서 구노(Kuno) 교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구노 교수는 9월부터 격주로 화요일 오후 3시에 만나서 2시간씩 통사 이론과 한국어 문법에 대하여 논의하자고 했어요. 마침 첫사랑, 첫 강의로부터 출발하여 그때 이미 서강대학교 교양 작문 책에 ‘국어의 문장 구조’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 원고가 있었지요. 그것을 토대로 영문 요지를 만들어 거의 모

든 문제에 대하여 영어, 일본어와 대조해 가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1년 동안 하버드대학과 매사추세츠 공대(MIT)의 중요 강의들을 청강하면서 초스키의 교실에서 래즈닉을 알게 되었지요. 그의 ‘A Course in GB Syntax’(1988)를 얻어서 번역하기로 하고, 원고를 만들어 와서 1992년에 《GB 통사론 강의》로 냈습니다. 그 책은 우리아게레카(Uriagereka)라는 바스크(Basque) 출신 학생이 자기 선생님의 강의를 기록하고 편집해 만든 책이었어요. 이후 토론 요약문과 이 번역본과 래드퍼드 번역서를 통합하여 강의를 하고,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 프린트를 모아서 책으로 내자는 결심을 했지요. 래드퍼드(1988)의 번역도 서울에 계시던 두 분 선생님(이광호, 임홍빈)과 함께 진행하여 귀국하자마자 1990년 8월에 을유문화사에서 《변형 문법》으로 발간하였고요. 그리고 귀국 후 대학원과 학부에서 강의한 것이 모여서 1998년의 빨간 책, 2000년의 까만 책으로 나왔습니다.

권창섭 주요 저서들이 모두 생성 통사론의 바탕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겠네요.

서정목 결과를 보면 생성 통사론을 도입하는 데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생님들께 배우고 공부해 온 것이 저와 같아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정이 안 되었습니다. 제 여건에 딱 맞는 일을 한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임홍빈 선생님과 40여 년에 걸친 사귀어 이끌어 간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임 선생님은 그 뒤로도 최소주의에 이르기까지 생성 통사론의 자세한 이론적 변화를 다 따라잡아 세세한 이론의 변화와 약점에도 훤히 밝으셨지요. 임 선생님을 가장 좋아하였고 존경하였으며, 다른 누구와 마신 술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지요. 더불어 세월을 흘러보낸 선배가 계셨다는 것이 이 모두를 가능하게 해 준 원동력이

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창섭 시간이 지나면서 생성 통사론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바뀌었겠습니니다.

서정목 심약 선생님께서 늘 40세 또는 (제 생각에는) 40대까지는 남의 이론을 좇아가서 따라잡고, 그다음부터는 제 것을 써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제 것이 써지나요? 학교 행정 일은 밀어닥치고, 원서 읽어서 대학원에서 강독할 능력도, 상황도 안 되었어요. 참 막막했어요. 그때 안 것이지요. '여기까지다'라고 아픈 마음을 다독겨렸습니다.

권창섭 아직 저로서는 상상도 되지 않는 마음일 것 같은데요.

서정목 청산(靑山)은 그림 같아도 생(生)은 유한(有限)한 것이고, 사람은 누구나 못다 이룬 한(恨)을 품고 가는 거지요. 남는 것은 청산(靑山)뿐이고, 한국에 산더미 같은 문법론 연구 업적이 있어도 내 흔적은 보이지도 않는 처참한 상태가 되었지요. 그래도 젊은 한 시절, 그렇게 미친 듯이 한곳에 빠져 살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들의 가르침 따라 이 공부를 이 방향으로 한 덕분입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머리 한 구석에는 이것이 내 본업은 아니고, 국어사나 방언과 관련하여 국어학 본연의 모습을 보여 주는 어떤 큰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성 문법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꺼려했어요. 수업도 조금은 자신의 논지에 대하여 방관하는 듯한 '생성 통사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이다'는 식으로 하였지요. 그러나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지도 못했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권창섭 많이 바쁘시기도 하셨을 뿐더러 여건도 되지 않으셨겠지요.

서정목 네. 최소주의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달려갔고, 저는 학교 행정 일에 빠져 이론서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는 촘스키의 진보적 좌파 행보가 싫었던 것도 작용했어요. 제게는 미국에서 잘

먹고 잘사는 사람이 다른 나라의 실상도 모르면서 반전하고, 반정부 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였어요. 또 가르치는 현장에서도 그 내용이 학교 문법과 완전히 다르니 학생들에게 강요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 향가 공부와 한문 공부에 집착하는 것은, 그리고 소나무(松)와 심원(心遠)에 집착하는 것은, 이제는 번덕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 공허함을 이겨 보자는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성 통사론은 이제 와서 보면 아무리 제가 멀리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공부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할 뿐이지요.

권창섭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모죽지랑가>에 대한 글을 쓰시는 등, 향가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서정목 30년 전부터 순전히 봉사 과목으로, 고전 문학 전공할 학생들을 도와준다는 마음가짐으로 가르쳐 왔던 향가를 최근에는 주력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찰 해독은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는 것이지요. 김완진 선생님의 해독을 소개하고 그 외의 다른 해독과 비교하면서 어떤 해독이 온당한 해독인가를 통사론적으로 가리는 데 치중하였지요.

권창섭 향가에 관한 글을 쓰신 적이 전에도 있으셨는지요?

서정목 전에 미국 있을 때 영문으로 한국의 언어와 문자라는 에세이를 쓰면서 <제망매가>를 소재로 향찰에 대하여 쓴 게 유일하지요. 그런데 성호경 교수가 서강대학교에 부임한 뒤로 자주 향가를 논의하게 되었는데, 술만 먹으면 자기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부른다’고 했어요. 자기 향가 공부의 스승은 김완진 선생님이신데, 그분이나 그분의 제자들은 자기를 제자나 형제로 안 본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반성을 많이 하였지요. 저는 그분을 선생님이라 부르면서도 제자다운 제자 구실을

못한 거지요. 30년을 그분의 학설로 향가를 가르치고도 글 한 편 발표하지 않다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향가 강의 30년을 어떻게든 정리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일단 <모죽지랑가>는 거의 다 되었는데 나머지는 또 언제 발표할지 모르겠네요. 선생님께 배운 해독에다 제가 가르치면서 알게 된 역사, 문학적인 해석이 토대를 받치는 구도인데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향 말을 떠나서는 이뤄질 수 없는

권창섭 생성 문법을 수용하시면서도 현대 국어, 서울말만 대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방언이나 국어사 문헌 자료를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서정목 1987년의 박사 학위 논문 “국어 의문문 연구”는 완전히 방언 자료와 중세 국어 문헌 자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첫 출발이 고향 말의 의문문을 기술하겠다는 것이었고 그 경상도 말과 같은 질서를 가진 말이 중세 국어였으니 좋은 뒷받침이 된 것이지요. 이 주제를 최초로 손댄 분이 아버지와 함께 경남 초등 교육계에 종사하신 나진석 선생님이라는 것도 기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료가 어떻느니, 이론이 어떻느니, 그런 논의에 끼어들 처지가 못 됩니다. 순전히 운이 좋아, 좋은 자료가 고향에 있었고 선생님들의 연구 결과 속에 있었습시다. 그 자료를 활용한 것뿐이지요. 이런 행운은 쉽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마 1980년대에 누군가가 매사추세츠 공대에 유학 가서 그 내용을 영어로 써서 제출했어도 그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가장 잘 입증해주는 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높게 평가하였을 것입니다.

권창섭 이론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어떤 자료를 대상으로 삼아

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서정목 아무리 좋은 이론이 있어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료가 있어도 그 자료의 언어학적 가치를 이론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체계적인 연구가 될 것입니다. 무슨 이론이면 어떻고 무슨 자료이면 또 어떻습니까? 좋은 이론을 공부해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한국어의 특성을 밝혀내면 그것으로 좋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자료를 사용하든 그 자료가 신빙성이 있고 자연 언어로서 한국어라는 보장만 되면 충분한 것이지요. 젊은 분들은 어떤 이론이든 하나를 붙들고 궁극까지 가기를 권합니다. 자료는 가리지 말고 다 다루고 어디에 어떤 자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권창섭 서강대학교에 함께 재직 중이신 곽충구 선생님과도 여러 영향 관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서정목 사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데에는 곽 교수가 곁에 있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처음 곽 교수가 왔을 때는 의견 충돌이 많았지요. 아무래도 대학원생들의 공부가 이론적 경향이 강한 분위기라서 곽 교수가 볼 때는 자료 쪽이 영 엉성해 보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중앙아시아나 중국 동포들의 언어 자료를 다루다 보니 특이한 현상도 많이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통사론을 하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신념이지요. 통사론은 정상 이론에 토대를 두고 핵 문법을 설정한 후에, 방언적 변이형을 설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먼저 이상한 자료 해석을 위하여 골몰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학생들이 자연스레 문헌에서 자료를 찾아, 특히 근대 국어 자료의 다양한 변화에 주목하여 논문을 쓰기 시작하였지요. 그 속에서 좋은 논문도 나오고 하여 저도 학생들이 최소주의를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그쪽이 낫겠다 싶어 그냥 두는 상황이 되었죠. 원래는 저도 자료에서

출발했으니까. 자기가 다루는 자료에 마땅한 새 이론이 없으면 과거 이론에 의지하는 것이 옳지요. 문헌 자료로 논문을 써도 문장 구조를 보는 기본 틀은 유지하라는 것이 저의 최소한의 요구이죠. 그러나 지금은 국내 어느 대학에서도 새 통사 이론을 소화하는 데가 없으니 걱정이지요.

권창섭 고향인 진해의 방언에 대한 자부심이나 애정도 깊으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국어 연구에서 고향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요?

서정목 자부심보다는 애정이라 해야 하겠지요. ‘어머니의 말’, ‘할머니의 말’이니까요. 물론 저희 집안은 여러 대 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 고향 말에서 증거를 가져와서 제 논지를 입증하려는 논의를 많이 편 것이지요. 의문문은 말할 것도 없고, 움라우트를 성조와 관련시키는 것도, 경어법에 관한 논문들도 대부분 핵심 논거는 그 방언 자료이지요. 제 공부는 고향 말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권창섭 고향 말은 자신이 잘 아는 말이니까 자신의 논의에 더 확실한 논거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서정목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사론은 문장 구조를 이루는 규칙을 찾는 것이다. 그 규칙은 문법적인 문장을 비문법적인 문장과 대조하면서 찾아야 한다. 어차피 내성적 직관에 의존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누구라도 자기가 확실히 아는 언어를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 내가 확실히 아는 언어는 고향 말이다. 내가 통사 구조를 논의할 때는 고향 말이 주자료일 수밖에 없다.’

권창섭 또 동남 방언이 가지는 특수성도 득이 될 수 있겠지요.

서정목 네, 맞습니다. 들여다보면 고향 말이 중세 국어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중세 국어는 현전하는 최고(最古)의 우리말로 상당히 이상적인 언어 체계를 드러내 보이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중세 국어와 비슷한 고향 말이 어찌면 표준적인 한국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

있지요. 그게 자부심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표준어를 보면 설명 못할 현상들이 많거든요. 어휘 요소이지만, ‘열대, 쇠대, 열쇠’만 해도 그렇죠. 원래 ‘자물쇠’가 있고 그걸 여는 것은 방언형 ‘열대’거든요. 그런데 표준어는 열쇠가 되었어요. ‘여는 것’과 ‘잠그는 것’이 한 단어에 다 들어와 버렸지요. 우리 고향에서는 주로 ‘쇠대’를 썼는데, 이 말은 ‘쇠를 여는 대’인 셈이니까 참아 줄 만하지요. 그런데 제 고향 외에 다른 동남 방언 지역 대부분에서는 ‘열대’란 말을 씁니다. 그 사물의 기능을 제대로 보여 주는 어휘이지요. 자물쇠를 ‘여는 대’이니까요. 그런 게 깔려 있어요. 경북 내륙의 ‘가니이더’, ‘가니이껴?’⁵⁾와 같은 말이 가지는 암시도 그런 것이지요. 이 말이 우리 집안에서는 대대로 사용되었어요. 경북에서 이주한 지 200년쯤 되었는데 말입니다. 어떤 자료든 그 자료가 신빙성이 있고 자연 언어로서 한국어라는 보장만 되면 충분한데, 표준 공통어는 자연 언어로서의 가치를 부여받기가 어렵다는 걸 강조한 것이 자부심처럼 보였을까요?

말 다듬는 일은 쉽지 않은 일

권창섭 선생님께서는 국립국어원에서도 여러 일을 맡아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서정목 1991년 2월부터 거의 4년간 새로 출범한 국립국어연구원의 어문실태연구부장으로 일하셨습니다. 창립 원장이신 안병희 선생님의

5) ‘가니이더, 가니이껴’와 같은 말에 들어 있는 ‘-이’는 청자에 대한 존대를 나타내는 형태료, 경상 방언이 중세 국어의 문법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예의 하나이다.

재직 시기와 같은 기간이지요. 제가 재직하던 어문실태연구부는 국어 순화라는 이름의 각종 생활 언어 다듬기, 해외 동포 한국어 보급, 북한어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권창섭 특히 표준 화법을 제정하는 일에 깊이 관여하셨지요?

서정목 담당 부장으로서 위원회 회의 때 사회를 보았고, 신문에 내거나 책으로 낼 때 연구원들이 쓴 초고를 손보았으니 제 책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원고를 안 선생님께서 직접 손보고 결재하신 뒤에 공간(公刊)했습니다. ‘표준 화법 제정’은 거의 언어 예절의 표준화 성격을 지닙니다. 제1차적 문제는 가족들끼리의 호칭어, 지칭어가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남편을 ‘아빠’, ‘오빠’ 심지어 ‘형’으로 부르고 시아버지를 ‘할아버지’로, 시누이의 남편을 ‘고모부’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논어》의 정명론(正名論)에 비추어 보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시초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초대 문화부 장관이신 이어령 선생님과 초대 국어연구원장 안병희 선생님께서 《조선일보》와 손잡고 생활 언어 전반을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혹시 바람직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여론 주도층을 형성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호칭, 지칭어에서 인사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실제 언어생활을 대상으로 기준이 될 만한 표준 어형을 논의하여 방향을 잡은 것이지요. 이 위원회는 연령층도 폭넓게, 출신 지역도 균형 잡히게 이루어져서 비교적 많이 쓰이는, 올바른 말을 표준 어형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표준화와 표준화된 말 사용에 가장 호응이 컸던 쪽이 방송 드라마들이지요. 가족들 사이의 호칭, 지칭어의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에 어긋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권창섭 최근에 그걸 다시 다듬는 작업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서정목 표준 화법 제정 20년이 되어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다시 검토하고 손질하는 위원회가 있었고, 그 위원장을 맡아서 20년 동안의 사용 추이를 보니까 거의 그때 정한 말들로 표준 어형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공한 언어 정화 운동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1년 5월에 이 일로 인터뷰한 것⁶⁾이 있으니 그쪽으로 미룹니다.

권창섭 해외 동포 우리말 보급이란 건 어떤 일이었습니까?

서정목 주로 공산권 동포들에게 표준 어형을 알려 주는 교육 활동입니다. 구소련, 중국의 동포들이 사용하는 말은 옛 함경도 또는 평안도 방언을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현대 북한말이 덧입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포 3, 4세대들이 우리말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정부나 민간단체가 공산권 동포들을 돕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하니 답답하지요. 그래서 표준어를 가르치러 나가고 언어 사용 실태 조사도 하고 했지요. 저는 주로 알마티,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사할린 이런 데를 갔지요. 거기서 주로 동포인 학교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언어 규범, 문법, 우리말의 역사, 언어 예절 등을 강의하였습니다. 또 현재의 선생님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하여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북한과 말 보급 경쟁 비슷한 심리도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권창섭 북한어도 담당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일이었나요?

서정목 북한어는 문화어 때문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얼음 보숭이’가 제일 기억에 남네요. 뜻이 아이스크림인데 ‘보숭이’가 황해도 방언에서 ‘콩고물’이에요. 그들은 ‘크림’이 가루인 줄 알았던 것이지요. 《월간 조선》, 《샘터》, 《한국인》 등 제가 칼럼을 쓰던 매체에 “아이스크림을 먹

6) “‘표준 화법 제정’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심포, 마침표》 제67호(2011. 6.)에 실려 있다.
(<http://news.korean.go.kr/online/sec/talk/talk.jsp?id=18&>)

어 보았으면 ‘얼음 보숭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썼지요. 거기서 말다듬기 하는 학자들이 서구 문명사회의 이기(利器)들에 대하여 접해 보지도 않은 상태인데, 무슨 전망이 있어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언어 정책을 수립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지요. 또 얼음 보숭이를 ‘에스키모’라고도 하는데 참 이상했어요. 나중에 보니 이게 상품을 만드는 회사명이었어요. ‘코카콜라’, ‘제록스’나 ‘진로’ 같은 거지요. 민족이나 언어 이름으로는 뜻풀이되지 않고 얼음 보숭이로 뜻풀이되는 ‘에스키모’, 상상이 됩니까? 그 뒤에 《조선말대사전》에서는 다듬은 말이 표제어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또 북한어 규범이 우리와 다르고, 외래어가 러시아식 발음으로 되어 있어서 ‘뿔스카(폴란드), 웅그리아(헝가리), 체스코(체코), 슬로벤스코(슬로바키아)’ 등이 특이하였지요. 통일에 대비하여 그런 것을 연구해 두라는 것이었지요. 저는 연구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보았지요. 남북 중, 어느 한쪽 중심으로 통일이 되면 그 한쪽의 어문 정책이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절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창섭 그 당시의 국어 순화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국어 순화 관련 사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말이죠.

서정목 국어 순화는 여러 일들이 많았는데 철도 등 공공 기관의 안내문을 다듬어 준 것이 기억나고, 의학 전문 용어, 건설 용어 등을 각 전문 분야와 협력하여 일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파트 이름이 한때 ‘한가람’, ‘상록수’, ‘달빛’, ‘은빛’으로 간 것이 그때인데, 일반적으로 ‘00동 00아파트’ 하여 회사 이름을 붙였거든요. 회사명 안 된다, 한자 안 된다, 영어 안 된다 했는데 잘 가다가 지금은 ‘래미안, 푸르지오’ 등 국적 없는 말로 더 나쁘게 가 버렸지요.

권창섭 재미있는 일화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서정목 ‘갯길’이 화젯거리였는데요, 그때 고속도로 가에 ‘노견 주행

금지'가 있었거든요. “노견'이 뭐냐, 늙은 개냐?” 이랬지요. 원래 영어로는 'shoulder'인데 일본에서 '로가타(路肩)'라 했어요. 물론 '어깨 肩'은 훈독이지요. 북한은 '길썰'이라 했는데, 고속도로를 보면 '갓길' 밖에 '길썰'이 따로 있어요. 우여곡절 끝에 국어 심의회에서 국어원의 연구원들이 제안한 '갓길'이 확정되었어요. 이에는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그냥 순화로 볼 문제가 아니다 싶어요. '주행선', '추월선'이 이미 있는데, 거기에 맞게 '비상선' 정도로 했어야 하는데, 그냥 한자어는 안 쓴다는 강박 관념 같은 것이 작용한 것이지요. 의학 용어 중에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하자는 결정을 했는데, 다른 '00선'을 모두 '00샘'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았지요. 아직 그 상태로 논란이 있습니다.

권창섭 국어 순화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비슷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목 말을 다룬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열린 분위기 돼야

권창섭 마지막으로 현재의 전반적인 국어학 분위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후배 연구자들에게 해 주고 싶으신 격려와 질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서정목 저는 행정직 교수로 일한 시간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교수 생활 총 35년 중 23년을 어떤 일이든 공부하는 것 외의 일이 머리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공부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국어사 연구가 상당히 넓고 깊게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헌들이 이용하기

쉽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공부하기에 편해졌습니다. 그 결과 옛날처럼 원전 자료를 확인하면서 공부하는 풍토가 사라졌습니다. 간접 인용은 틀릴 수도 있고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논문에 인용하는 자료, 주요 논거는 꼭 원전에서 확인하고 사용하는 전통이 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창섭 기술의 진보가 독이 되기도 하지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반성이 많이 됩니다. 자료를 대하는 태도뿐 아니라 언어학 이론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해서도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겠지요?

서정목 지금은 마땅히 권할 이론도 없는 것 같지요? 이런 때는 이미 있는 이론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처음부터 찬찬히 다시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빨간 책을 쓰면서 일부러 구조 기술 언어학을 선생님들께 배운 노트를 꺼내 놓고 정리하였습니다. 언어학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유행 따라 생성 문법이니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까 봐, 구조 기술 언어학도 누구보다 더 잘 배웠다는 긍지를 가지려 했거든요. 그런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성 통사론, 생성 음운론도 이제 그런 시각으로 그 시대의 고전이다 생각하고 찬찬히 들여다볼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통사론만 말하면 을유문화사의 《변형 문법이란 무엇인가》(1984), 《변형 문법》(1990), 한신문화사의 《GB 통사론 강의》(1992), 해게만(Haegeman)의 《GB 이론 입문》(1991) 정도를 읽어볼 필요가 있지요. 이흥배 교수의 번역도 보기를 권합니다. 가장 나쁜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지요. 지난 시대 이론은 한물갔다, 새 이론은 없다, 그러니 이론 공부 할 것은 없다, 이게 제일 나쁜 것이지요. 당분간 GB 정도의 생성 통사론을 보고, 음운론도 웬만하면 생성 음운론에 토대를 두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게 썩 좋은 것이 없거든요. 무언가를 공부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 좋을 것입니다.

권창섭 언제든, 무엇이든, 공부할 수 있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이로
균요.

서정목 국어학뿐만 아니지만, 우리나라 대학의 풍토 가운데 꼭 바뀌
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접 학과나 같은 학과 다른 교수
의 강의를 듣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
니다. 졸업생들도 필요하면 모교에 가서 전에 배운 선생님이 요새는 어
떻게 달리 가르치나 하는 것을 보았으면 합니다. 다른 대학 강의도 들
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대학원생들도 신청한 과목 아니면 안 듣는
데 참 바보 같은 생각이지요. 인접 과목도 청강하고, 수료한 뒤에도 관
련 과목은 계속 청강하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창섭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서정목 매사추세츠 공대의 강의실에는 다른 대학의 교수로 가 있는
졸업생들도 많이 왔습니다. 다른 교수들도 서로 청강하였습니다. 하버
드대학교의 강의실에는 품위 있게 예쁘게 나이 드신 호호백발 할머니들
과 멋쟁이 할아버지들도 보입니다. 얘기를 나누어 보면 학교 이웃에 사
는데 이 과목 내용이 재미있어서 시간 나면 청강하러 온다고 합니다. 알
아보니 그 학교에서 은퇴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르친 후배
교수가 요새는 어떤 연구를 하나? 우리가 쓴 논문은 지금 언급이라도 될
까? 그런 것이 사람 사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대학이 열려 있는 것이지
요. 그게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도 퇴임하면 그럴 용기가 없겠지요.

권창섭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서정목 고맙습니다.